

민은기의 클래식 비망록

드레퓔스 유죄에 분노, 파리 공연 거부했던 그리그

민은기
서울대 음악학과 교수



선서가 코앞에 다가왔다 보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특정 후보를 향해 지지를 표하거나 응원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 말이다. 예술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유명한 연예인의 지지는 천군만마를 얻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반대 측에는 그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지난 미국 대선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자 민주당은 환호했고 트럼프는 강하게 반발했던 이유다.

예술가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때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탄압을 초래하기도 한다. 3억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스위프트야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별 탈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웬만한 연예인들이라면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못마를 맞아 무대에서 사라졌을 터이다. 어디 미국만 그러하냐. 우리나라에서도 반정부 메시지를 내는 예술가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던 때가 있었고 특정 정치 성향의 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불이익을 주는 일도 있지 않았던가.

그러니 현실 정치에는 아예 관심을 끊고 침묵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은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예술인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클래식 분야에서도 여럿을 꼽을 수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19세기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다. 음악가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자국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리스트 “스칸디나비아의 혼” 극찬

그 대표적인 예는 1899년 9월 파리에서 자신의 작품만을 연주하는 콘서트의 지휘 초대를 공개적으로 거절한 사건이다. 엄청난 명예와 금전적 보상을 차버린 것도 모자라 그는 자신을 초대한 톨몬에게 보낸 편지를 프랑코푸르트의 한 신문에 게재해버렸다. 양심상 파리에 갈 수 없다고 시작되는 편지의 내용은 매우 단호했다. “프랑스 국민이 법과 정의를 대하는 역겨운 방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프랑스 정중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분노했던 대상은 그 유명한 드레퓔스 사건이었다. 그가 이 편지를 쓰기 바로 3일 전, 프랑스의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퓔스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유대인 혐오가 만연하던 시절 드레퓔스 중령은 독일인에게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무고하게 기소되었다. 그리고 비공개 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은 후 무인도로 유배되어 가족과의 편지교환도 금지된 채 혹독한 수감생활을 4년째 하고 있었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증거가 나왔으나 군 당국은 이를 은폐하고 오히려 증거를 찾아낸 조르주 피카르 중령을 좌천시켜 버린다. 다행히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피카르 덕분에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1898년 소설가 에밀 졸라가 대통령에게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보내며 재조사를 요구하였고 결국 재심이 성사된다.

하지만 재심에서 드레퓔스의 누명이 벗겨지기는 커녕 불의를 고발한 에밀 졸라까지 중상모략 죄로 유죄를 받자 이 사건은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적인 스캔들이 되었다. 이 기간에 군대와 사법 시스템의 반유대주의와 폐쇄성을 비판하는 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세력은 서로 목숨을 건 극단적 대립을 보였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많다고 하지 않던가. 이 상황에서 그리그가 드레퓔스에 대한 연대를 밝힌 것이었으니 반대 세력의 모든 화살

19세기 노르웨이 국민 작곡가

정치의식 강했던 150cm 작은 거인

“프랑스 혐오, 그 무대 서기 싫다”

자국 국가 작곡한 노르드라크와 인연

“민족음악 발전 노력” 약속 평생 지킴

입센 원작의 ‘페르퀀트’ 음악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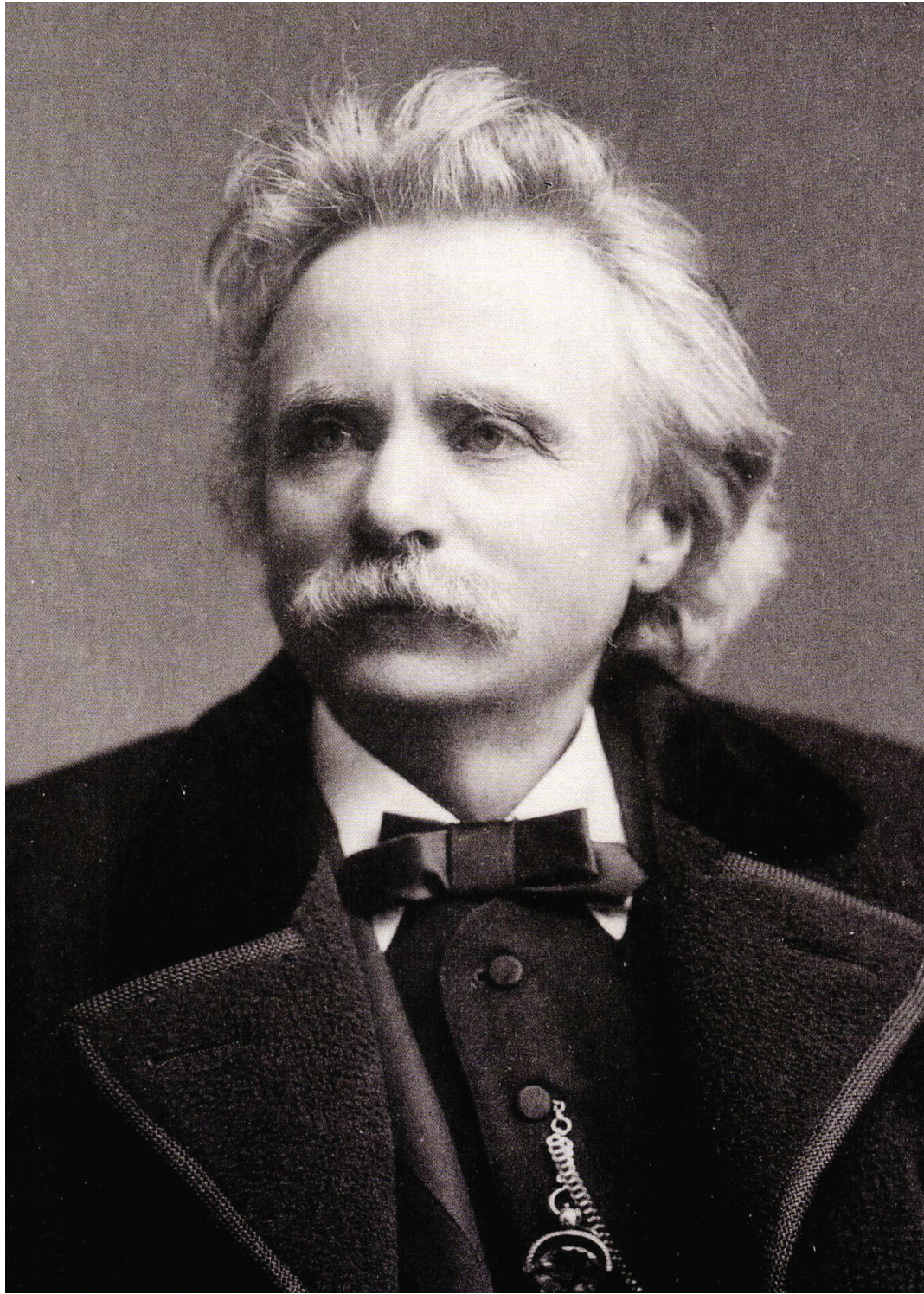
‘솔베이지의 노래’ 등 세계인이 사랑

정치적 예술가의 대명사지만 노르웨이의 자부심으로 통하는 작곡가 그리그. (사진 사회평론)

이 그에게 집중된다. 살해 협박을 포함한 증오 편지가 쏟아진 것은 물론 지인들로부터 결별 선언이 있었고 많은 콘서트가 취소되는 피해가 속출했다. 3



‘르 페티 주르날’ 1898년 1월 13일자에 실린 앙리 메예의 드레퓔스 군적 박탈식 그림. (중앙포토)



년 후 물론은 그리그를 다시 파리로 초청했고 그는 경찰의 호위를 받아가며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미운 감정은 오래가는 법이다. 청중석으로부터 아유가 터져 나오는 소동을 피하지 못했고 이후 다시는 파리에 가지 못했다.

그리그가 처음부터 정치의식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노르웨이 제2의 도시이자 대서양에 면한 아름다운 항만도시 베르겐에서, 부유한 상인이자 베르겐의 영국 부영사였던 아버지를 둔 덕분에 어려서부터 유복하게 자랐다.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에게 일찍 피아노를 배웠다. 그의 이모부 옌스 불이 노르웨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올레 불의 동생이었기에 그는 불의 조언을 받아 15살에 독일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이그나츠 모셀레스가 이끌던 라이프치히 음악원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음악원에 입학한 그리그는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했다. 입학한 이듬해에 낙담염과 결핵이라는 치명적이었던 질환에 걸려 사투를 벌여야 했던 그는 좌측 폐가 망가지고 흉추에 심각한 기형이 생겼다.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노르웨이 국가인 ‘그레,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한다’를 작곡한 리카르 노르드라크와의 만남이었다. 당시 노르웨이는 400년간이나 덴마크의 실질적 지배를 받아오다가,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로 1814년부터 스웨덴에 합병



그리그와 민족음악 동지였던 노르드라크.

이 된 상태였다. 노르웨이인들은 독립을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고 덕분에 독자적인 의회와 군대 그리고 자체 화폐에 대해 자치권을 쟁취했으나 수백년간 타국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민족의 정체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 졸업 후 3년간 머물렀던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그리그는 노르드라크를 만났고, “노르웨이에는 돌이 충분하니 밖에서 돌을 가져

올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많은 돌 조각들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역설한 노르드라크는 민족음악의 길을 찾고 있던 그리그에게 그야말로 어둠 속의 등대였다.

돌의 우정은 그러나 노르드라크가 결핵에 걸려 2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바람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리그는 노르웨이 민족음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그와의 약속을 평생 소중히 지켰다. 그해 노르웨이 음악만으로 구성된 연주회를 열어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은 그리그에게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주었다. 당대 최고의 거장 프란츠 리스트가 그의 재능을 알아봐 준 것. 리스트의 추천 덕분에 그는 지원금을 받고 로마에 가서 리스트를 만났는데, 이때 리스트가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의 바이올린 파트와 피아노 파트를 한꺼번에 초견으로 연주하며 기뻐했다는 일화는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이후 그리그는 두 살도 안 된 외동딸 알렉산드라를 낙담염으로 잃는 비극을 겪는 와중에도 그의 대표작이자 가장 사랑받는 낭만주의 피아노 협주곡 중 하나로 꼽히는 ‘피아노 협주곡 A단조’를 완성한다. 그가 새로 작곡한 이 곡의 악보를 들고 리스트를 다시 찾았을 때, 역시 초견으로 전곡을 읽어 나간 리스트는 “이것이야말로 스칸디나비아의 혼”이라며 극찬했다고 한다.

64세 별세 댄 극장, 수만명 애도 몰결

이즈음 노르웨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작곡가로 부상한 그리그는 당시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한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희곡 ‘페르퀀트’에 들어갈 음악을 작곡해 달라는 제의를 받는다. 2년 만에 완성되어 무대에 올라간 ‘페르퀀트’는 난해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리그의 음악에 힘입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입센 원작의 초현실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에 비해 음악이 너무 낭만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때 사용된 ‘아침의 기분’ ‘오제의 죽음’ ‘솔베이지의 노래’ 등의 음악들은 따로 출판되어 지금도 세계인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성공으로 그는 국제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으나 초심을 잃지 않았고 평소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다.

150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키에 병치레가 많았던 허약한 체질이었음에도 그는 시종 중에는 유럽 각지에서 열리는 콘서트 투어를 소화했으며 콘서트가 열리지 않는 여름에는 작곡과 기존 작품의 편곡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는 64세의 나이에 심부전증으로 사망한다. 유언에 따라 장례식에는 그의 절친이었던 할보르센의 지휘로 그가 젊은 시절 노르드라크를 추모하며 작곡했던 ‘장송행진곡’이 연주되었다. 국장으로 치루어진 예식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몰려들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는 평생 한걸음 노르웨이 음악에 천착했던 천성 예술인이었고 숲과 바다를 사랑했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고 권위와는 거리가 먼 소탈한 이웃이었다. 그의 삶과 작품을 시종일관 관철했던 것은 순수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순해를 보았지만 그래서 사랑받았고 노르웨이의 자부심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그의 작품을 듣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민은기 서울대학교에서 음악이론을 전공하고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5년부터 서울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음악과 페미니즘’ ‘독재자와 음악’ ‘대중음악의 역사’ 등을 주제로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최근에는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 시리즈를 집필 중이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